

[전체공지]

교황님 기도 지향

<복음화 지향> 그리스도교 공동체, 특히 박해받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계심을 느끼며 그들의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사순절 피정 (4/6, 4/7)

- 일시: 4/6(토) 오후 4 시 게인즈빌 St. Patrick 성당, 4/7(일) 오후 1 시 잭슨빌 본당
- 강사: 김데레시아 수녀님
- 제목: "너 나를 사랑하느냐? 사도 베드로의 회개와 삶을 따라 사랑과 소명의 삶 살기"
- 참회예절: "하느님께 돌아가기"

[잭슨빌]

- 사순절 기간동안 수요일, 금요일 7 시 반에 십자가의 길 기도가 있습니다.
- 이번주일부터 목요일 (3 월 21 일) 아침 11 시에 평일미사가 있습니다.
- 부활초와 부활꽃 봉헌 하실분은 전례부장 최영선 마리아 자매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동유럽 성지순례] 2019 년 9 월 16 일부터 9 월 25 일까지 (9 박 10 일) 일정이 공지 되었습니다. 신청문의 904-573-1833 / sftccm@gmail.com

[게인즈빌]

- 오늘 미사후 3 월 전체식사가 카페테리아에서 있사오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다음주(4/6) 미사후 사목회의가 있습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공동체	주일봉헌금	교 무 금	건축헌금	기 타	총 계
게인즈빌	-	-	-	-	-
잭슨빌	\$374	\$2,700	-	\$500	\$3,574



聖 최경환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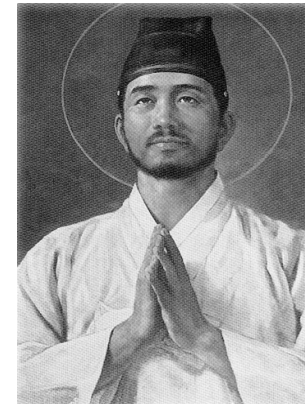
St. Francis Choe Korean Catholic Mission

주임신부 김영수 스테파노 (904) 525-4809

성당 (904) 573-1833

잭슨빌 성당 St. Francis Choe Catholic Mission, 8051 Rampart Rd. Jacksonville, FL 32244

게인즈빌공동체 St. Patrick Parish, 550 NE 16th Ave. Gainesville, FL 32601



聖 최경환(崔京煥) 프란치스코(1805-1839)

잭슨빌 한인 성당		게인즈빌 한인 가톨릭 공동체	
주일 미사	일요일 오전 10 시 30 분	특전 미사	토요일 오후 7 시
평일 미사	매주 수요일 오후 8 시, 첫째 금요일 성체현시 및 미사	평일 미사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7시30 분 성가대 연습실
성령 기도	매주 금요일 오후 8 시	성령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9 시 30 분
성프란치스코 기도회	매주 (목) 오전 11 시	레지오	-
성시간	첫째 주 금요일 미사 후	주일학교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주일 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사목회의	첫째 주 주일미사 후	사목회의	첫째 주 특전 미사 후
사목회장	송재민 하상바로로 (904) 226-7191	사목회장	천창준 레오 (860) 906-6567

www.stfccc.org

https://www.facebook.com/St.FrancisChoe

오늘의 묵상

회개하지 않으면 종말에 심판받을 것임을 경고하는 복음 말씀을 듣고 있다면 조금 섬뜩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화답송이 노래하듯이 주님께서 자비롭고 너그러운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제 1 독서는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주님의 모습을 잘 보여 줍니다.

하느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모양으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떨기나무로 번역된 히브리 말은 ‘서네’입니다. 이 ‘서네’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로 작은 잎이 무성하며, 가지가 매우 얇아 불꽃이 닿기만 해도 금방 타 버릴 것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꼭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서네, 곧 덩불 속에 사시는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과 함께하시는 분, 광야에 사시면서 불모지에서 약한 존재들 사이에 머무시는 분이십니다. ‘시나이’라는 말도 이 낱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신명 33,16 도 주님을 직접 ‘서네 속에 사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시지 않는다고 여기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덩불처럼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느님을 원망하곤 하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느님께서는 당신이야말로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보고, 들어, 알고 계신 분, 그들 속에 사시는 분이심을 밝히십니다. 그 하느님 이름이 바로 “야훼”, 곧 “있는 나”입니다. 계시지 않는 어떤 분이 아니라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간다면 즉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느님이십니다. (염철호 요한 신부)

< 8. 찬미하여라 >





사순 제 3 주일

[제 1 독서] 탈출기 3.1-8 ㄱ.13-15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화답송] 시편 103(102),1-2.3-4.6-7.8 과 11 (◎8 ㄱ)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 코린토 1 서 10.1-6.10-12

<모세와 함께한 백성의 광야 생활은 우리에게 경고가 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복음환호송]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복음] 루카 13,1-9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전례 봉사자>

공동체		해 설	제 1 독서	제 2 독서	봉 헌
이 번 주	게인즈빌 (3/23)	고승희 엘리사벳	이호석 레오폴드	임윤미 플로라	-
	잭슨빌 (3/24)	이교순 카타리나	김현희 아네스	송재민 하상 바오로	이상미 미리암 서정원 헬레나
다 음 주	게인즈빌 (3/30)	이호석 레오폴드	Timothy Vail	이민지 엠마	-
	잭슨빌 (3/31)	한상신 디나	서정원 헬레나	손활란 안나	함동진 안드레아 함두순 베로니카

<미 사 성 가>

공동체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건
게인즈빌	336	475	106	217
잭슨빌	127	221	168	124